제주의 숲을 품고 있는 목하(木下)는 이름 그대로 나무 아래에서 쉬어 간다는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제주의 바람이 실어오는 바다의 파도같은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또한 소나무 외에도 다양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단지 머무르는 것 만으로도 숲이 선사하는 편안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선사하는 힐링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가세요.

"저는 도시에서 치열한 30, 40대를 살다가 제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제주에서 느낀 편안함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목하를 열었어요. 단 며칠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게스트 한분 한분 과의 교류가 제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게스트분들이 목하에 머무는 동안 소중한 인연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로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하(木下)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14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세화리 1728-66

숙소의 특별한 점

• 모든 룸에 있는 프라이빗 자쿠지

• 제주 녹차, 황용차, 만리화차 등으로 구성된 목하 제주 스페셜 다도 세트

• 웰컴 바구니(빵, 음료)와 함께하는 편안한 아침

• 숙소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숲내음

•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숲의 전경과 아침을 깨워주는 새소리

• 루콜라, 상추, 참외, 수박 등을 직접 따먹을 수 있는 텃밭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유명 관광지 여행보다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분

•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차를 즐기거나 사색을 원하는 분

• 숲속 한가운데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 요가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시몬스 윌리엄 KK 사이즈 침대와 5성급 이상의 호텔 침구로 편안함과 청결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 아로마티카, 스킨유, 록시땅 등 향기로운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어요.

• 세화해변, 비자림, 만장굴, 다랑쉬 오름 등을 즐길 수 있어요.

• 관리동에 있는 반려견 웰시코기 봉이가 반갑다고 짖을 수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